서울 구민신문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해 달라"



김서윤 송파구의원 (풍납1·2, 잠실4·6동)

김서윤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6일 송파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서윤 의원은 "2026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경상·자본전출금이 261억6700여만으로, 이처럼 막대한 송파구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 이사장이라면 전문성은 물론 책임감과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을 엄격히 검증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임명된 이사장은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재직 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논란, 시민단체를 동원한 관제 공작 관여 의혹의 인물"이라며, "더욱이 그는 8월1일 임용된 후 3일부터 근무해야 하는데도 13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14일에야 첫 출근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서윤 의원은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을 어떻게 뽑고 배치하느냐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뜻"이라며, "민선 9기의 이번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가 되지 않도록 공단 이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주문했다.